

결혼과 여성지위 - 자기 인생을 준비하지 않은 헛똑똑이들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결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을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하고픈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길러내는 과정이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둔감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입시'로 대변되는 꼭 막힌 성장과정은 다른 사회, 다른 생각, 여러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를 진지하게 질문해 볼 틈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 볼 새가 없다.

수많은 단협의 틀이 늘어선 위에 '여자'라는 또하나의 틀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자기다움'이란 더 악조건 속에 놓여 있다. 자기 내면의 욕구를 감지할 능력을 잃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으로 미래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 해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학교육까지, 그것도 우등생으로 일류대학을 나온 많은 현대여성들이 결혼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결혼한 이후에 당황하는 모습들은 오랜 제도교육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충실히 해낸 탓이기도 하다.

결혼생활에 잘 적응한 여성들일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결혼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가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예상 못한 '밀알이 될' 위험

결혼이 얼마나 여성의 인생에서 치명적인 족쇄가 될 수 있으며 어떤 요인들이 여성의 삶을 죄어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무지하다. 이들의 결혼이란 그림은 '뜻이 통하는 남자와 함께 커가는 생활' 정도의 낭만적인 색채로 그려져 있다. 결혼의 현실이 함께 크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성장을 위한 밀알이 되는 과정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한 대비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는 것이다.

결혼을 하더라도 자기의 꿈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여자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지금의 결혼 현실은 심중팔구는 여자를 밀알로 만들어간다. 결혼 이후에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기 위해 미리 살펴야 할 많은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예상 밖의 압력에 끌려가면서 이를 운명이나 팔자라는 언어로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들, 여기엔 제도교육에서 우수한 성적도 무의미해진다.

아무리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급진적인 사회의식을 가졌다 해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능력을 기르지 못한 '헛똑똑이'들이 양산돼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유교문화와의 끈끈한 유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족제도가 이들 '헛똑똑이'들의 설익은 이론과 막연한 기대, 나약한 주체 의식을 압도하기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다. 뒤늦게 결혼 몇 년 후에 이를 거스르려는 노력은 결혼 전에 미리 피해가는 노력보다 몇 갑절 더 힘들게 마련이다.

"내가 부양가족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5공지하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집시법 위반으로 1년간 복역했던 운동권 여학생이 지금 두아이의 엄마가 돼 있다. 그의 결혼생활은 여느 여자들처럼 아이 기르기에 정신없고, 시집살이에 치이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 기다리는 생활이었다. 학창시절 자신이 원했던 것과는 무척 다른 삶을 살고 있음을 인정하는 그는 그 원인을 삶에 대한 준비력 부족에서 찾는다.

누구보다도 이 사회 발전에 헌신하려는 의지가 강했던 그가 지금 남편과 아이가 아니면 사회와 연결될 통로가 없는 고립감을 절감하고 있는 생활을 하게 된 몇 개의 계기를 찾아보자.

우선 결혼생활의 현실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역시 운동권 학생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정할 즈음에 그는 결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남편도 나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기로 하면서 돈이 없으면 방한칸 얻어서 같이 돈 벌면서 살아야지 하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를 먹여살리는 일이 있어도 내가 그의 부양가족이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그러나 결혼 직전에 남편이 취직되면서 그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된 전업주부의 길을 걷게 된다.

경제적 의존이란 자기의 성장을 주장하는 여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지는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에게도 직업을 가질 기회가 있었다. 출옥하고 복학해서 재야단체에서 일을 해오면서 그는 한 여성운동단체를 자신의 현장으로 선택했다. 중간에 선배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았지만 '여성운동에 헌신하겠다'는 생각에 직장을 포기하고 그 여성단체에서 활동을 계속했다.

직업 대신 '운동' 선택, 경제적 의존의 길 접어들어

간사라는 직함을 받은 그가 한달 급여로 받은 돈은 5만원. 2년간 그 생활을 계속하던 그는 결혼 이후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된다.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 소모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성운동이나 사회운동이라는 것의

전망도 불투명했고 경제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고 나이는 서른을 넘어섰고.... 뼈뺀 남편월급 축내고 가정에 소홀해지면서까지 계속할 힘이 없었어요. 입덧이 심해지면서 활동을 쉬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직장생활을 선택했다면 더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되었을거라는 그는 '운동'에 대한 열정 때문에 경제적 독립의 기회를 포기한 당시의 '철없는' 선택을 후회하기도 한다.

운동권 조직 체험으로 비현실적 성향 강화

방한칸 얻어 가난하지만 오붓하고 평등한 결혼을 꿈꾸던 그는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결혼한다니까 엄마가 둘다 직업이 없다고 걱정하시면서 천만원을 보태셨어요. 혼수장만 하느라 엄마가 바쁘게 뛰어다니는 걸 보고서야 결혼이란 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참 한량으로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한 집안의 장녀로 역척스런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성장했던 그는 28세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야 겨우 어머니를 한 인간으로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학생운동권의 인자로 대학생생활을 해왔던 그는 그동안 "엄마는 얘기 상대가 안되는 될 줄 모르는 사람" 줌으로

여겨왔는데 그제서야 "엄마의 근면성, 생활력이 존경스럽고 내가 엄마 뒤꿈치만 따라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우리의 교육이며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실체를 느끼기에 게으르게 만드는지를 절감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는 자신의 이런 비현실적인 성향이 자기가 몸담아온 운동권 조직 체험에서 더 키워졌다고 보고 있다.

"학생운동에 깊이 빠지면서 가족과의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고민을 조직내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개인적인 일은 '니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일축해버렸어요. 노동 현장 가는 것 이외에 직장을 고민한다거나 하는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취급됐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시부모와 결혼했다'

그의 학창시절을 지배했던 유일한 고민은 '학내 학생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하는 것이었다.

결혼이나 직장 같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계기들이 '운동'에 묻히면서 그는 자기인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또 한가지 그의 결혼생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의

출산과 육아, 시집살이가 전혀 예상 밖의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후부터 시작된 노부모 부양은 그를 결혼생활에 더 치이게 만드는데 이런 부담이 다가올 가능성에 대해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출근 시키고 시부모 아침상 차리고 빨래하고 다시 시부모 점심 드시고 청소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늦은 밤에 자리에 들면 서야 오늘 세수를 안했음을 깨닫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는 뒤늦은 슬픔을 느껴왔다. '돈도 안 나오는 일을 이런 일 하려고 결혼했는가? 남편은 얼굴 보기도 힘들고, 내가 시부모와 결혼했는가?' 매마침 안부를 묻는 엄마의 전화라도 걸려오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친근한 가족들과 떨어져서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하는 서러움에 북받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결혼 통해 생생한 노동, 살아있는 인간관계 배워

결혼 5년만에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아파트의 핵가족으로 되돌아간 그는 신문불 여유가 생겼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그의 사회운동 이론도 많이 변했다.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속에서 거시적인 전체를 단위로 하고 본질적 원리를 추구하던 학창시절, 자신의 사고 성향을 '살아 움직이는 관계를 본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생생한 노동을 하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회운동이란 자기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기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막연한 정의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생활을 정리해 보라는 질문을 던지자 그는 이렇게 답한다 "결혼을 통해 생생한 노동과 살아있는 인간관계를 배웠다. 결혼을 안한 삶에 대한 모델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결혼을 안했다면 상황이 더 길어졌을 것이나."

그에게 결혼은 힘들기도 했지만 그런대로 충분한 보상을 준 선택이었다는 결론이다. 적어도 그가 결혼과 자기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할 수도 있었다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함을 감안한다면 그의 결혼은 긍정적이다.

또한 자기자신에 대한 극도의 둔감증을 제도화시켰던 군사문화 아래서 젊음을 보냈던 한 유능한 여성의 삶의 궤적으로 기억될 수 있다.

(김효선 기자)